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 : 15)



샘 케이 시마부꾸로 장로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 제2보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가장 큰 축복 중의 하나는 우리들이 친절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갖고 계시는 지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순수하고 무한한 사랑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에게 대해 끝없이 사랑을 품고 계시는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이며 우리의 구세주요 구속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영원한 평화와 승영에 이를 수 있도록 계획을 준비하셨음을 아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진리를 앞으로써 우리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느끼며 인생이 의미와

목적에 있는 것임을 가슴 깊이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위대한 진리를 가르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매우 단순한 말로 “인간의 가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큼을 기억하라.”(교성 18 : 10)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가치가 왜 큰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보라, 인간에게 불사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일, 이것이 바로 나의 사업이요, 영광이니라.”(모세서 1 : 39)고 명백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무한한 사랑 때문에 몸소 마련해 두신 모든

부 중 가장 큰 것을 우리가 얻기를 바라십니다.

“보라, 영생을 가진 자 그가 곧 부자니라.”(교성 6 : 7) 영생은 해의 왕국에서의 승영이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사는 축복인 것입니다.

인간의 가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크다면 인간을 구하는 그 사업 역시 큰 가치를 지닌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진리는 주님이 “보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네게 가장 값있는 일은 이 백성에게 회개를 선포하여 많은 사람을 내게로 데려오며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 저들과 더불어 안식을 누리는 것이니라.”(교성 15 : 6)고 말씀하셨을 때 명백해졌습니다. 선교 사업에 참여하는

말일성도들에게 있어 그것은 영혼을 구하는 사업이며 큰 가치를 지닌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 한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지 못했으며, 그분들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들 보시기에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진리는 우리를 가르치는 선교사들과 시간을 내어 우리를 교회로 데려가고 또 상냥하고 친절하게 돌보아 주어 결국은 우리를 개종으로 이끈 회원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알려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그들의 영혼이 귀중하며 큰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알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들도 역시 어떻게 승영에 이를 수 있으며 또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6)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그들은 그들의 구원과 승영에 필요한 원리와 의식을 배워야 합니다. 이 모든 진리는 오로지 우리가 활동적으로 선교 사업을 행할 때에만 그들이 배울 수 있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무엇보다도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의무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스펜서 더블류 김블 대관장님도 "세상에 복음을 가져다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선교 사업은 모든 합당한 청년 청년과 부부들이 열심히 참여할 수 있는 전도 임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훈계와 모범으로써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회원들의 의무"(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젊은이들과 부부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큰 가치를 지닌 많은 영혼들을 데려오는 이 신성한 의무를 짊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한 기도합니다. 또 우리는 회원들이 자신의 친구와 친척들에 대해 더 훌륭하고 효과적으로 선교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숫자가 늘어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귀중한 자녀들은 그들이 맞본 그 어느 것보다 감미롭고 그들이 본 어느 것보다 희며 심령을 크나큰 기쁨으로 가득 채우는 열매를 취할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니파이일서 8:11, 12 참조)

"모든 회원은 선교사"라고 말씀한 맥케이 대관장님의 기대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마가복음 16:15)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이 성취되도록 노력합시다. 선교 사업에 대한 여러분의 노력은 의심할 여지없이 대단히 가치있는 것이 될 것이며 그 대업 또한 똑같이 가치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받아 들인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충실한 아들과 딸을 위해 준비해 두신 가장 훌륭하고 풍성한 모든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게 될 것입니다. □

새로운 총관리 역원들이 부름받음

칠십인 정원회 회원이 증원됨

대관장단은 칠십인 제이 정원회에서 봉사하게 될 열 다섯 명의 새로운 총관리 역원이 부름을 받았다고 발표하였다. 이와 함께 네 명의 칠십인 제이 정원회 회원이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원으로 부름받았다.

새로운 총관리 역원을 부른 이유는 금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칠십인 정원회 회원 중에서 몇만 분이 명예 총관리 역원으로 지명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멕시코 지역이 곧 몬테레이를 중심으로 한 북 멕시코 지역과 멕시코 시티에 본부를 둔 남 멕시코 지역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지역 회장단이 필요하다.

칠십인 제일 정원회에서 봉사하도록 부름받은 네 명의 총관리 역원은 다음과 같다. 칼로스 에이치 아마도 장로 과테말라 시티, 중앙 아메리카 지역 회장단 제1보좌, 벤지민 비 벵크스 장로, 유타 주 머레이, 태평양 지역 회장단에서 봉사했으며 현재 유타 주 센트럴 지역 회장단 제1보좌로 봉사하고 있음. 스펜서 제이 크이

장로, 아이다호 주 프레스톤, 현재 유럽 지중해 지역 회장, 로버트 케이 텔린바흐 장로, 유타 주 솔트레이크 시티, 본부 청남 회장단 제1보좌 및 북미 북동 지역 회장단 제2보좌.

칠십인 제이 정원회의 새로운 회원들은 다음과 같다. 리노 알바레스 장로, 현재 멕시코 교회 교육 기구 대표, 델러노스 앤 아치발드 장로, 브라질 상파울로, 기업체 임원 메릴 제이 베이트먼 장로, 유타 주 프로보, 경영 고문 시맥스 쿨드웰 장로, 유타 주 스프링빌, 브리감 영 대학 종교학 교수 게리제이 콜먼 장로, 유타 주 플레즌트뷰, 유타 주 옥든에 있는 웨버 주립 대학교 말일성도 신학 연구원 대학부 부책임자 존 비 덕슨 장로, 외싱턴 주 알링턴, 목재 업체 임원, 존 이 파울러 장로, 유타 주 샌디, 공인 회계사, 제이 이 켈슨 장로, 유타 주오럼, 교회 교과 과정 책임자, 아우구스토우 에이 립 장로, 필리핀 마닐라, 법률가이며, 현재 필리핀 나가 선교부장, 존 엠 매드슨 장로, 유타 주 샌디, 브리감 영 대학교 교수 브리 달라스 메릴 장로, 유타 주 머레이, 경영 고문 데이비드 소렌슨 장로, 네바다 주 라스베가스, 목장주. 에프 데이비드 스탠리 장로, 유타 주 솔트레이크 시티, 디자인 및 건축 업체 임원, 현재 아이다호 보이스 선교부장 콕 투빈 타이 장로, 홍콩, 수입 수출상, 현재 홍콩 선교부장 로우엘 디 우드 장로, 유타 주 센터빌, 필리핀 마닐라 지역 교회 실무 책임자. □

관리 감독을 역임한 존 에이치 반덴버그 장로 별세



명에 총관리 역원인 존 에이치 반덴버그 장로님이 1992년 6월 3일 샌디에 있는 유타 병원에서 향년 87세를 일기로 노환으로 별세했다.

반덴버그 장로는 11년 동안 교회 관리 감독으로 봉사했으며, 1972년 십이사도 평의회 보조로 1976년에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원으로 부름받았으며, 2년 후명에 총관리 역원이 되었다. 반덴버그 장로는 관리 감독으로 부름받기 전 6년 동안 교회 건축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일했다.

반덴버그 장로는 유타 주 옥든에서 태어났으며, 네덜란드에서 복음 선교사로 봉사했다. 스테이크 선교부장단에서 봉사했으며, 콜로라도와 유타에서 스테이크 부장단 보좌로도 봉사했다.

반덴버그 장로는 총관리 역원으로 부름받기 전에 콜로라도에 살면서

모직물 및 가죽 판매업을 했으며, 직물 생산업과 목장에도 관여했다.

유족으로는 부인인 아리아나 스톡 반덴버그 자매와 두 딸, 그리고 11명의 손자녀와 10명의 증손 자녀가 있다. □

김종렬 장로 새로운 서울 지역 대표로 부름받다



지난 4월 17일 서울 지역의 새로운 지역 대표로 부름받은 김종렬 장로가 북아시아 지역의 더블류 유진 헨슨 회장에 의해 성별되었다.

김종렬 장로(52세)는 경기 중·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치과 대학을 졸업했으며 동 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편 대한 구강 내과 학회 회장, 대한 구강 보건 학회 회장, 한국 구강 보건 협회 상무 이사, 문교부 학술 진흥 위원회 위원 등의 다채로운 사회 경력을 소유하고 있으며 현재는 연세 대학교 치과 대학 교수 겸 구강 진단과 주임 교수로 재직

중이다.

1989년 이래 한국 지역 공보 위원회 위원장으로 봉사해 온 김 장로는 1960년 8월에 침례를 받았으며 그동안 교회내에서 서울 스테이크 제3와드 감독, 서울 스테이크 스테이크 부장의 보좌, 반포 지부장, 서울 선교부 선교부장의 보좌, 영동 스테이크 선교부장 등의 직책에서 봉사했다.

김 장로는 영동 스테이크 서초 와드의 회원이며 가족으로는 부인 홍영숙 자매와 슬하에는 혜수, 은수 두 딸이 있다. □

조용이 형제 석탄 산업훈장 받다



1992년 4월 21일 한국 과학 기술 연구원 존슨 강당에서 열린 제25회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영동 스테이크 영동 와드의 조용이 형제가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되는 석탄 산업 훈장을 받았다.

주식회사 창운산업의 대표

이사로 재직 중인 조용이 형제는 국내 자동차용 부품 단조 공업 생산 및 기술 발전에 진력하면서 각종 생산 라인에 자동화 시스템을 선도하였으며 국내 최초로 동합금 소결법의 핵심 거점 기술 개발에 성공하는 등 자동차 부품 개발과 생산에 크게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영예의 수상자가 되었다.

가족으로는 부인 홍추자 자매와의 사이에 주은, 홍상, 준상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

아버님의 개종



조중현(순천 지부)

1992년 5월 9일은 모든 가족의 온 세상을 얻은 듯한 가슴 벅찬 기쁨의 날이었다. 우리 가족 29명의 가장으로서 아버님이 마지막 침례를 받으심으로 나의 개종으로부터 22년 6개월만에 전 가족이 말일성도가 되었고 살아 있는 가족뿐만 아니라 먼저 영의 세계로 가서서 복음을 받아들이신 조상들에게 큰 기쁨의 선물을 안겨 준 날이었다. 나의 아버님은 74년의 세월을 이 세대의

한국의 아버님들이 당했던 수난을 다 겪으셨고 특별히 마음이 온유하고 정직한 사람이 겪을 수밖에 없는 당혹스런 날들을 많이 살으셨다. 아버님은 타인에게 온유하시면서도 자녀들은 험난한 세상을 온순하고 정직하게만 살아서는 안된다며 강하게 자라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자녀들이 교회에 다니는 것을 싫어하셨고 자기 손과 자신을 믿으 라고 하시면서 부지런히 일하심으로 많은 가족을 부양하셨다. 자녀들이 아버님의 개종의 소망이 크면 클수록 기도의 영이 강하면 강할수록 아버님의 교회에 대한 거부감을 더해졌다. 더군다나 자녀들의 세상적인 성공에 대한 적은 투자가 못마땅하셨고 세상적인 나약함도 아버님을 실망시켰다. 교회와 복음 얘기만 나오면 화를 내셨고 어떤 때는 기물을 던지거나 깨뜨리시며 집을 나가버리시기도 하셨다. 거부의 태도가 너무 강렬하셔서 어떻게 자녀들의 마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지 막막한 상태가 모래 지속되었고 조심스럽게 교회 활동을 해야했다. 동생인 조용현 감독이 복음 선교사 부름을 받기 위해 준비할 때, 석유공사를 그만두고 신학 연구원 교수로 부름을 받을때, 특히 막내 조성자 자매가 복음 선교사 부름을 위해 허락을 받고자 할 때 강하게 반대하셨고 결국 조자매는 포기해야 했다. 아내는 4년 동안 주일에 교회에 나가는 것을 보류해야 했으며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에 시험당하고 있었던 때도 있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토요일 오후 "진실로 주의 음성은

만민에게 미치며 한 사람이라도
피할 자가 없나니, 보지 아니할
눈도 없으며 듣지 아니할 귀도
없으며 꿰뚫리지 아니할 마음도
없느니라.”(고리와 성약 1:2)는
바로 이 말씀이 우리 가족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서 크게
울렸다. 아버님 개종의 직접적인
동기는 성신이지만 성신의 영을
불러들이신 분은 어머니와 자매
선교사들의 사랑이며 어머니의
개종은 온 가족의 끊임없는 간구와
간증이 동기가 되었다. 수년동안
부모님 댁에 선교사들의 방문이
그치지 않았고 그들중엔 환영받은
분도 계시지만 수모를 당한 분도
있었다. 어릴적부터 불교도이셨지만
작년 7월에 개종하신 어머니는
기도의 방을 따로 마련하시고
조석으로 기도하시며 아버님에 대한
태도가 변해서 어떻게 해서든
아버님의 마음을 호뭇하게 하시려
노력하셨으며 교회 참석이나
회원들을 위해 봉사하고자 원하실
때도 아버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고
항상 마음이 주 안에서

유쾌하셨으므로 아버님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셨다. 또한 우리
가족들은 이 위대한 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임을 바로 볼 수
있었다. 성전상님께 침례받기 전
아버님의 마음이 숨처럼
부드러워지셔서 두 손을
어린이처럼 모으시고 머리숙여
절하여 “형제 자매 여러분,
침례받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과
여러분께 감사하며 늘 건강하도록
축복받으시고 먼 곳에서 나를 위해
오신 성전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어찌 또 다른 기적을 다른
사람들에게서 찾지 않을 것인가?
아버님의 부드럽게 변화되신
모습으로 인해 어머니께서는 젊은
시절 어려웠던 모든 것들에 대한
보상을 받고도 남으셔서 큰
기쁨으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진실도 성신이 함께 할때의 가정은
행복 바로 그것이다. 온 가족은
부모님과 함께 서울 성전
인봉실에서 무릎 꿇을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복음의 축복에 겨워
지낸다. □

서울서 스테인크 대회

안양 스테이크와 수원
스테인크가 새로 탄생함

지난 5월 23~24일 양일간 서울
서 스테이크 센터에서 북아시아
지역의 더블류 유진 헨슨 회장과
1보좌인 한인상 장로가 참석한
가운데 서울 서 스테이크 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대회에서 봉천 와드가 봉천
낙성대 와드로, 안양 와드가 안양,
군포 와드로, 신풍 와드는 신풍,
울전 와드로, 권선 와드는 권선,
매탄 와드로 각각 분리
승인되었다.

한편 서울 서 스테이크는 이
대회를 통해서 기존의 서울 서
스테인크와 안양 스테이크, 수원
스테인크로 분리되었으며 각
스테인크 소속의 와드/지부는
다음과 같다.



서울 서 스테이크 : 봉천 와드, 낙성대 와드, 신림 와드, 노량진 와드, 상도 와드, 사당 와드

안양 스테이크 : 안양 와드, 군포 와드, 시흥 와드, 독산 와드, 과천 와드, 안산 와드

수원 스테이크 : 신포 와드, 권선 와드, 매탄 와드, 울전 와드, 오산 와드, 평택 지부, 안성 지부

그리고 새로 구성된 각 스테이크의 스테이크 부장단은 다음과 같다.

서울 서 스테이크 :
조정환(스테이크 부장),
이상래(제1보좌), 윤세영(제2보좌)

안양 스테이크 :
이영환(스테이크 부장),
이정근(제1보좌), 정동찬(제2보좌)

수원 스테이크 :
이용환(스테이크 부장),
이영희(제1보좌), 허충석(제2보좌)

*역원 변경

- ◎ 서울 서 스테이크
상도 와드 감독 : 김용 형제
(전임자 : 윤세영 형제)
봉천 와드 감독 : 김정근 형제
(전임자 : 신국재 형제)

- ◎ 인천 스테이크
· 부평 와드 감독 : 김동의 형제
(전임자 : 전종렬 형제)
· 답동 와드 감독 : 길영권 형제
(전임자 : 배광식 형제)
· 용현 와드 감독 : 이태호 형제
(전임자 : 정승채 형제)
· 간석 지부장 : 이석렬 형제
(전임자 : 백운석 형제)

- ◎ 수원 스테이크
신포 와드 감독 : 구분철 형제
(전임자 : 이영희 형제)

권선 와드 감독 : 최원포 형제
(전임자 : 허충석 형제)

- ◎ 서울 서 선교부
이천 지부장 : 신호철 형제
(전임자 : 신기문 형제)

- ◎ 부산 서 스테이크
진해 와드 감독 : 최승대 형제
(전임자 : 김충석 형제)

*조직 변경

- 사당 지부 → 사당 와드
(감독 : 이인수 형제)
- 송림 와드 → 계산 와드
(감독 : 전종렬 형제)
- 독산 지부 → 독산 와드
- 반월 지부 → 오산 와드
- 과천 지부 → 과천 와드
- 안성, 평택 지부
→ 수원 스테이크로 편입

선교사 훈련원 제139기

(1992. 5. 11~1992. 5. 24)

(성명)	(출신지)	(선교부)
김영곤 장로	서울 서S/사당 지부	대전 선교부
정진호 장로	서울서S/상도 와드	대전 선교부
윤성영 장로	영동 S/미천 지부	대전 선교부
김희준 장로	영동 S/성남 와드	부산 선교부
신소라 자매	영동 S/영동 와드	부산 선교부
전용선 장로	서울 S/삼청 와드	부산 선교부
유병주 장로	대구 S/대명 와드	서울 서 선교부



앞줄 왼쪽부터 : 유병주, 신소라, 김영곤, 뒷줄 왼쪽부터 : 윤성영, 정진호, 김희준, 전용선